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세수를 하고 세면대의 물을 내리지 않는 습관을 가진 아이에게 '세수 후에는 세면대의 물을 내려라!'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땐 "Drain the water after washing your face!"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먹어 봐!

Have some! / Try this!

2. 내일까지 그 편지 부쳐라!

Mail the letter by tomorrow!

3. 가서 가격을 확인해라!

Go check the price!

4. 세수하고 나서 물을 내려라!

Drain the water after washing your face!

5. 빨리 결정해!

Hurry up and make a decision!

6. 이 수건을 적셔라!

Go wet this towel!

7. 모두 여기에 모아라!

Put them together here.

8. 가서 빈 박스 구해봐!

Go find the empty boxes!

9. 이것 입어봐!

Try this on!

10. 이 재킷을 입어라!

Wear this jacket! Put on this jacket!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골프다이제스트 "임성재는 'PGA 유목민'"

지난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임성재(22·CJ대한통·사진)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소개했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미국의 '골프다이제스트'는 전날 "PGA투어 유목민의 생활을 이야기 하다."라는 이색적인 제목으로 임성재의 미국 생활을 소개했다.

임성재는 '골프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집을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호텔에 머무는 것을 더 선호한다. 어차피 시즌을 마치면 집에 돌아가고, 한국에서 몇 달간 머문다. 미국에서는 호텔에 묵으면 되고, 시즌 후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 된다."며 "부모님과 매 대회마다 동행하고 있다. 2개의 호텔방을 잡아 하나는 부모님이, 다른 방에선 내가 생

활 한다."고 밝혔다.

임성재는 또 "대회 참가를 위해 어느 도시에 가든 우선 한국식당부터 찾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동할 때는 "보통 우버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아직 PGA 첫 승이 없는 임성재는 "최고의 선수들이 우승하지만, 솔직히 행운도 따라야 한다. 지금보다 더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며 운이 따른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3살 때 처음 클럽을 잡은 임성재는 7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했다. 2015년에 일본 무대에서도 뛰었던 그는 2017년 Q스쿨을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35개 PGA 대회 중 29개 대회에 출전해 아놀드파머 인비테이셔널 공동 3위 등 총 7차례 '톱10'에 들었으며 프레지던츠 컵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벌어들인 총 상금은 285만1,134달러였다.

그는 상금의 사용처에 대해 "어머니께 가방을 선물했다."면서 "좋은 가방"이라며 웃었다.

박인비 세계 랭킹 꺾춤... 올림픽 출전 경쟁 가열

박인비(3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20승을 달성하면서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한국 국가대표 구성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인비는 16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끝난 LPGA 투어 ISPS 호주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세계 랭킹을 17위에서 11위로 올려놨다. 도쿄올림픽에는 6월 세계 랭킹 기준으로 나라별로 상위 2명씩 나갈 수 있다. 단 세계 랭킹 15위 이내에 진입한 선수들은 한 나라에서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여자골프 세계 최강인 한국은 현재 세계 랭킹 15위 내에 6명(1위 고진영(25), 3위 박성현(27), 6위 김세영(27), 9위 이정은(24), 11위 박인비, 13위 김효주(25))이 들어 있어 한 나라에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최대치인 4명이 태극마크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현재 랭킹 포인트 8.53을 기록, 2위 벨리 코르다(미국)의 5.87점을 크게 앞선 고진영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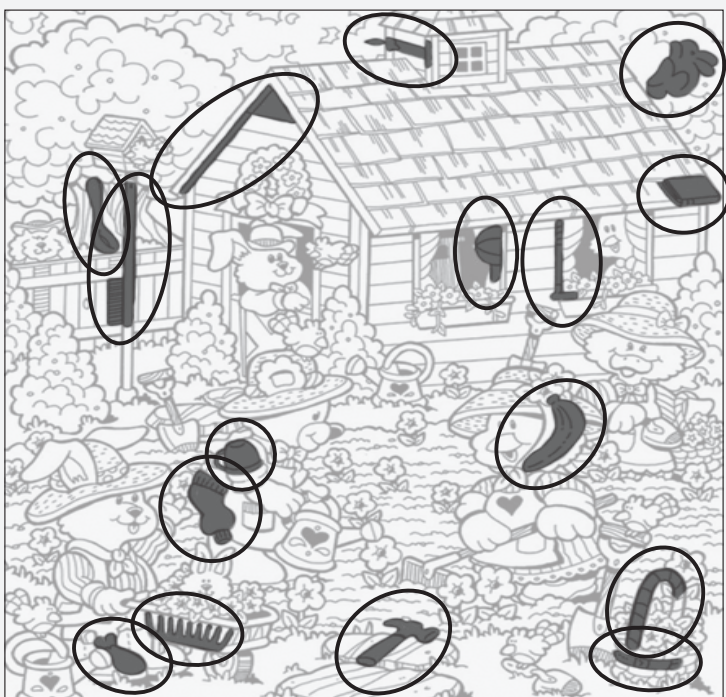
변이 없는 한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3위 박성현은 5.86점이고 김세영이 5.13점, 이정은 4.73점, 박인비 4.42점, 김효주 4.02점으로 비교적 좁은 편이라 이들은 아직 올림픽 출전을 낙관 또는 비관하기에 이르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박인비가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해지는 기준선이 된 7월 US여자오픈까지 세계 랭킹 3위로 올림픽 출전권을 얻었고 이후 5위 김세영, 6위 양희영(31), 8위 전인지(26)까지 올림픽에 출전했다.

올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세계 랭킹의 시점은 여자부의 경우 6월 29일 자 순위다. 이 날짜 세계 랭킹에 따라 나라별 상위 2명, 15위 내 선수는 최대 4명까지 기준에 맞춰 총 60명이 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박인비의 우승으로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태극마크 경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낱말퍼즐 정답

	1	등	본		2	복	3	근				
		덜					4	두	개	5	골	
6	현	미	7	경			8	천	운		탕	
	재		9	보	10	호	자					
					11	신	문	12	사		13	시
14	이		15	기	술			16	연	17	대	기
18	유	행	어							조		
			19	코	스			20	종	영		